

이란, 원유 생산 23년만에 최저

IEA, 9월 평균 263만배럴 추정 ... 판매수입금도 40% 격감

이란 핵 프로그램 억제를 겨냥한 서방의 제재로 이란산 원유 생산이 23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0월12일 발표한 석유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9월 이란산 원유 생산을 하루 263만배럴로 추정했다.

IEA의 추정치는 8월 285만배럴에 비해 22만배럴, 2011년에 비해 100만배럴 이상 감소한 물량이다.

이란산 원유 생산 및 수출 감소세가 최근 심화한 이란 리알화 가치 폭락세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시장전문가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란산 원유 판매수입금이 2011년에 비해 4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으며, “이란은 재정 운용의 위기를 맞고 있어 리알화가 미국 달러화 대비 30% 이상 폭락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15>